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앨범에 관한 고찰

김준수*, 조태선**
*알바 트로스 뮤직,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kimjoonsoo6696@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Wittgenstein” Album

Joon-Soo Kim Tae-seon Cho*
Albatross Music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신해철의 음악은 변화무쌍하다. 호기심과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그는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서라면, 음악의 장르, 형태뿐만 아니라, 장소의 제약, 팀의 구성원의 조합 등 자신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한한 변신을 추구한다. 신해철은 무한궤도, 노덴스, 넥스트, 크롬, 모노크롬, 비트겐슈타인 등 밴드의 외형적인 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실험적인 음악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가 발표한 앨범에는 수억원의 비용으로 제작한 앨범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비트겐슈타인 앨범은 고작 30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제작되었다.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인 부분들이라 보여지는 제작의 형태에서도 실험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다.

1. 서 론

신해철은 서강대 철학과를 중퇴하였다. 그래서 인지 그가 발표한 작품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 이별 등의 상투적인 어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삶, 죽음, 사상, 윤리 등 대중음악에서는 가사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나, 문장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음악이라는 것을 악보의 음악부호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작품을 보다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그는 음악적인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컨셉트 앨범이라는 형식을 앨범에 적용하였다. 컨셉트 앨범은 앨범 수록곡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그가 발표했던 넥스트 앨

범이 바로 이런 구조의 앨범이라고 할 수 있다. 《Theatre Wittgenstein: Part 1 - A Man's Life》이라는 타이틀의 본 앨범 역시 '한국사회에서 남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4부작으로 제작된 컨셉트 앨범이다. 2000년 12월 14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앨범에 대해 신해철은 “남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보통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부장제 속에서 스스로 얽매고 오히려 고통 받는 남자들의 입장을 노래로 표현하고자 하였다.”라며, 이번 앨범 역시 대중음악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현실적인 남자의 삶에 대해 자신만의 음악스타일로 표현하고 있다.

2. 본 론

2000년 12월에 발표한 비트겐슈타인 앨범은 넥스트

의 해체 후 영국에서 유명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인 크리스 상그리디(Chris Tsangarides)와의 모노크롬 앨범을 발표한 뒤 음악적 구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이때 만난 재미교포 기타리스트 데빈리와 Crom's Techno Works 앨범의 수록곡 '일상로의 초대'의 피아노 연주와 영화 <세기말> OST를 함께 작업한 키보디스트 임형빈(Vin-K),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3인조 프로젝트 형태의 밴드이다. 비트겐슈타인 앨범은 30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제작된 저예산 홈 레코딩 앨범으로 보컬과 프로그래밍은 신해철이 맡았으며, 드럼은 샘플링 음원을 활용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록밴드 "닥터코어 911"의 멤버였던 쭈니(드럼)와 쇼기(베이스 세션)를 영입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비트겐슈타인은 2년간의 활동을 접고, 2004년 이들의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의 영입 등으로 넥스트를 재결성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밴드이름은 "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1889~1951)이라는 실존했던 철학자의 이름에서 차용하게 된다. 이전 앨범 모노크롬에서도 신해철은 "크롬(Crom)"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는데, 영국의 혁명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해석되며, 그의 팬클럽의 이름인 철기군 역시 크롬웰의 정예부대에서 착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 매체의 인터뷰를 참고하자면, 사실 이같이 크롬웰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하였다. 말소리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을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작명한 것뿐이며, 그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의 앨범 수록곡은 다음과 같다.

Starter

- 1. Theatre Wittgenstein Part 1 2:17
- 2. 백수의 아침 4:41
- 3. Friends 4:50

Main Dish : Course 1

- 4. Theatre Wittgenstein Part 2 2:02
- 5. 오버액션 맨 4:21
- 6. Cynical Love Song 4:53
- 7. 수컷의 몰락 PART 1 5:50

Main Dish : Cour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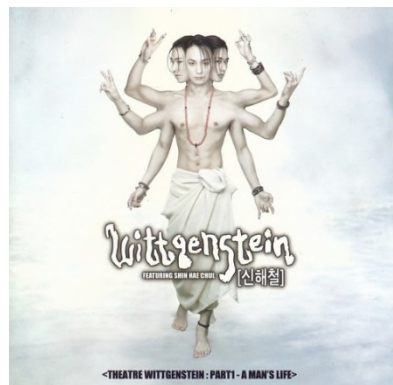
- 8. Theatre Wittgenstein Part 3 1:04
- 9. 소년아 기타를 잡아라 5:39
- 10. The Pressure (압박) 4:00
- 11. 수컷의 몰락 PART 2 6:15

Desserts

- 12. Dear My Girlfriend 임형빈 4:40

총 4부작 12곡으로 수록된 본 앨범은 트랙리스트 중간마다 "Starter", "Main Dish:Course1", "Main Dish:Course2", "Desserts"라는 음식점의 메뉴판 형식을 차용하여 명확하게 4부작을 구분지어 주고 있다. 컨트리풍의 록음악으로 시작하는 "Theatre Wittgenstein Part 1"은 "비트겐슈타인 공연장"이라는 제목으로 곡을 감상해 보면, 본 공연이 시작되기 멤버들의 소개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공연 전 연출진을 소개하는 형상처럼 들리며, 중간 가사에 공연을 보다 즐겁게 즐기라는 의미에서 "오징어 땅콩, 소주"라는 주전부리를 파는 잡상인의 멘트를 넣어서 음원을 통해서 음악을 감상한다기보다는 공연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듯 한 사실감을 구현해 주고 있다. 후렴구를 제창하는 부분에서는 보이소보코더(목소리 변조 용도로 쓰이는 악기)를 사용함으로써 앨범의 처음부터 재미있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Starter라고 나누어진 1부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비트겐슈타인의 앨범 자켓 전면

위에서 <그림 1>은 비트겐슈타인의 앨범 자켓 전면이다.

자켓은 신해철과 데빈리, 임형빈의 사진을 한 몸으로 합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인도 베다 신화에 나오는 아수라의 형태와 비슷한 형상이다. 또

한, 불교에서의 “아수라”라는 용어는 화를 잘 내고 성질이 포악하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을 뜻한다. 본 앨범을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보면, 물론 몇몇 작품은 무거운 주제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4부작으로 나누어지는 기점인 “Theatre Wittgenstein Part 1~4”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산만하며 장난스럽게 느껴지는 아수라장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앨범 전면 그림 아수라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전체적인 음악적 분위기는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신해철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그는 각종 대중매체에 경계 없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전 방위적인 아티스트이다. 논객, 사회활동가라는 수식어도 그에게는 어색한 표현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은 항상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였고, 그 호기심은 매번 음악적인 실험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의 장르와 연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가사 소재부터, 음원 제작의 형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최초로 컴퓨터 미디어음악으로 앨범을 발표하고, 최초의 영어 랩, 국악의 샘플링, 록 음악과 국악의 협업, 하이퀄리티의 애니메이션 OST 앨범, 테크노음악과 국악의 접목 등 수많은 실험적인 음악적 행보는 신해철을 단순히 노래만을 가창하는 보컬리스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뮤지션에서 나아가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 활동하였던 넥스트에서의 보여주었던 음악은 프로그레시브의 성향이 짙은 아트록에 기반을 둔 실험적인 록 음악이었다면, 비트겐슈타인 앨범은 얼터너티브, 모던 록, 하드코어에 가까운 비교적 가벼운 록 음악의 성향을 띄고 있다. 넥스트의 음악이 펼쳐놓은 듯 오케스트라 스케일의 음악이었다면, 비트겐슈타인 음악은 마치 스쿨밴드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음악으로 보여진다. 그 당시 스케일의 제한이 있었던 저예산 홈 레코딩의 단점 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 할 부분이다. 컴퓨터 한 대로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찌보면 지금은 매우 당연하고 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본 앨범이 발표되었던 2000년 12월에는 매우 새로운 시도였음은 분명하다. 매번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신해철은 분명 한국의 대중 음악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현재 여러

아티스트의 본받고 싶어하는 본보기상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월 영화 투자배급사인 에이스 메이커 무비웍스는 신해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넥스트 유나이트와 함께 그의 일대기 영화(그대에게 :가제)를 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로 퀸(Queen)의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가 재조명되면서, 보헤미안랩소디 신드롬을 만들었다. 그 시절을 향수하는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들까지도 퀸에 열광하며, 퀸의 음악성에 대중들은 열광하게 되었다. 음악을 듣는 관점에서 대중들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간단한 논리를 갖고 있다. 대중음악은 다수의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을 창작하는 뮤지션들은 자신이 항상 하고 싶은 음악과 대중들이 더 좋아하는 음악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한다. 소위 말하는 매니아 층만을 위해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기에는 경제적이거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데뷔 초 신해철은 현재 아이돌이라고 불려지는 보컬리스트였다. 그러나 그는 음악적 갈망과 호기심으로 매번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결국 저조한 앨범의 판매량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노력이 없으면 발전도 없듯이 끊임없는 변화는 그의 음악적 능력을 계속 해서 발전시켰으며, 이것은 한국대중음악의 발전으로 이어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 (1) www.cromfan.com(신해철 팬 홈페이지)
- (2) 신해철의 꽤변독설
- (3) 나무 위키
- (4) 위키 백과
- (5) 비트겐슈타인 앨범 자켓 부클릿
- (6) 한겨레신문 2000.12.14. 인터뷰
- (7) 중앙일보 2020.01.02. 기사
- (8) 모노크롬앨범에 관한 고찰(한국산학기술학회)